

가정생활의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 울산광역시 성인 남·여를 중심으로

권 안 나(울산대 박사과정)

본 연구는 가정생활의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한국 가정생활의 현상과 실태를 포착하고자 한다. 나아가 성별, 세대별 등 다양한 요인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 가족 및 가정생활상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가정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 자녀에 대한 인식, 양성평등(성역할 및 여성취업),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과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관한 인식까지 총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이에 따라 2011년 울산광역시의 20대부터 60대 이상 성인 남·여 460명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방법은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와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정의 기능은 ‘정서적 유대 및 여가’ 기능과 ‘사회보장’, ‘자녀 양육 및 사회화’로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됨의 희생과 보람이라는 양면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자녀를 노후 보장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양성평등의식은 일정부분에서는 수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부장적인 의식도 혼재하고 있어 과도기적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미혼,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함께 사는 것보다 경제적인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어, 노부모를 부양하는 방식에서의 변화된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결혼 전까지의 경제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준비 및 결혼 후 경제 및 정서적인 도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먼저 가정의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정형 혹은 보편형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무엇보다 인식과 실태 그리고 제도의 불일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장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성은 자녀 양육에 있어 남성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평등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의식의 전환과 실천을 위해 남성의 가족생활역할 회복,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일-가정 양립 등,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시하고 있는 ‘돌봄’에 대한 아젠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부적인 제도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